



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눈에 효율적이기만 하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방의 제도를 따라하면서 파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정·교회·학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나시길 계획하셨지만, 성과와 효율이라 는 맹목 하에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일임하면서 가정과 교육이 분리되었고, 신앙의 영역만 관리하겠다면서 교회와 교육도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에서 벌어진 교육의 분열학(?)은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안을 찾거나쳤다. 그러나 지금보이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찾으면 차후에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대안이라는 차원으로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공교육을 대신할 대안(代案)교육이 아니라 세계관을 엿볼이는 계획하셨던 원인原素)교육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원래 목표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내는 원인교육으로 회복되어야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 부터이기에 성성으로 들어가 교육의 문제를 풀어보자.

국가는 모든 공교육에서 종교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론을 밟고 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우리 자신과 차녀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후에 기독교적 교훈이나 세계관을 엿볼이는 정도로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아리의 목표로 명시된 기독교세계관의 정립을 통하여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주의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을 의미한다. 인본주의는 공교육의 모든 과목을 통해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인본주의의 물질주의가 어린 시절부터 구조화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입장한 삶은 마치 깨드릴 수 없는 용벽과도 같다. 옹벽처럼 굳어버리도록 십 수 년 동안 방지한 세상의 사고를 바꾸는 이유는 눈에 직접 뿐 뛰진 볍씨는 너무 연약하여 바람만 불어도 견디질 못하기 때문이다. 미친가지로 자녀들이 자의식이 생기고 가치관을 형성되는 청소년기까지는 철저하게 외부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킨 후에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해야함에도 지금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역

해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계획하였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그에게서 온 물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물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에서 보듯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야한다고 알려준다.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면 온 물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능하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물 흰 공동체를 이루어야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각 마디가 연결되지 않는 각 지체의 은사들이 흘러가지 않으면서도 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는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으며,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예외 없이 다른 기관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곳은 자녀교육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자녀교육이다. 왜냐하면 자녀교육은 부모라면 결코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특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아리가 원래 목표를 기쳤던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해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다. 또한 자녀교육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면 그 무엇보다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외쳐도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데 이것은 큰 모순이다.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와쳐도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다.

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교육에서 공동체성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이겠나라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성한 분량으로의 성장이라 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각마다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각자체의 분량대로 예시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결국 부모들이 비른 목표를 가져야만 비른 방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른 방언을 실행하려면 교 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자녀의 문제기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고, 교육방법의 문제기 아니라 공동체성 회복의 문제이다. 이처럼 기독교 교육은 기성과 교회와 직접 밖을 살피거나, 교회 내부에서 살피거나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기독교 교육의 체계를 맡기고자 하거나 부모로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체계를 맡기고자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기독교 교육의 체계를 맡기고자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주일학교(Sunday School)을 교회학교(Church School)

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의 원리까지 충족시키는 방안은 존재하는가? 그 해답은 흄스콜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이다. 교회에는 이미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실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러 흄스콜들이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육 공동체를 교회가 지원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와 흄스콜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동시에 해결된다. 교육 공동체를 이룬 교회학교에서는 학생은 우리들의 자녀이고, 교사는 우리들의 부모이며, 교실은 우리들의 개정이고 교회마다 우리 조상들이 품았던 서로 도왔듯이 각 가정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소유로 서로를 섭섭으로써 함께하야 한다.

홈스쿨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가 해결책이 말지만, 교회는 형성학적 장소를 지원해 줄뿐 아니라 대학교육이 형성화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한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되온 교육부의 우수성이 도여야 한다.

이마, 성령의 교육목표는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왜곡된 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학교가 시작될 수 있는 최대의 관점이다. 각 가정들이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부족점을 체운다면 시너지 효과로 현실의 높은 벽과 함께 넘어설 수 있다. 더불어 험하게는 교육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나눌 수 있다. 더 이상 가정, 교회, 학교는 분리된 독립기관이 아니라 한 공동체이다. 앞에서 제기된 모든 어려움은 교회가 원래 갖고 있던 공동체의 회복, 즉 '가정' 같은 교회와 '학교'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험하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내리신 명령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여행 회의 비전에 '가정의 제자도는 육침만으로는 부족하며 마리와 가슴, 그리고 영혼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의침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영혼 모두로 이루어야 할 최우선의 제지도는 자녀교육이다. 이 세상을 급진적으로 변화하려면 예수님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앞서서 원안교육의 회복을 시작해야 소망이 있다.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왜곡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원안교육을 통해 회복되기를 꿈꾼다.

시론은 왜곡된 교육열을 이용한다

사람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인들의 왜곡된 교육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느 부모도 자녀교육으로부터 차유로울 수 없기에 교육이 제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공함만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수께끼가 정의 실별한, 조기 유학생들의 분리, 기타 아빠의 방황 등에서 보듯이 교육이라는 맹목 하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또한 주일학교의 죽소, 중고등부의 무관심, 청년대학부의 물량 등과 같이 교육이라는 거센 흐오리에 교회마저도 훌쩍살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인애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제자리를 이탈한 교육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과 교회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으면 회복될 수 있다.

통폐합된 가정과 교회를 원안교육으로 회복하자

대부분이 명문학원과 입학과제,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교육에 매진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독교 교육이 출발할 수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뿌리내릴 수 없다. 부모가 움켜쥐고 있는 자녀교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



차성도 경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임효실 지마와 혼스풀링을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학 4학년 인 진학 그리고 현재 허슬스풀링 중인 신상과 함께 기정·교회·학교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바전을 훌스풀링 예수초 교회, V-School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

